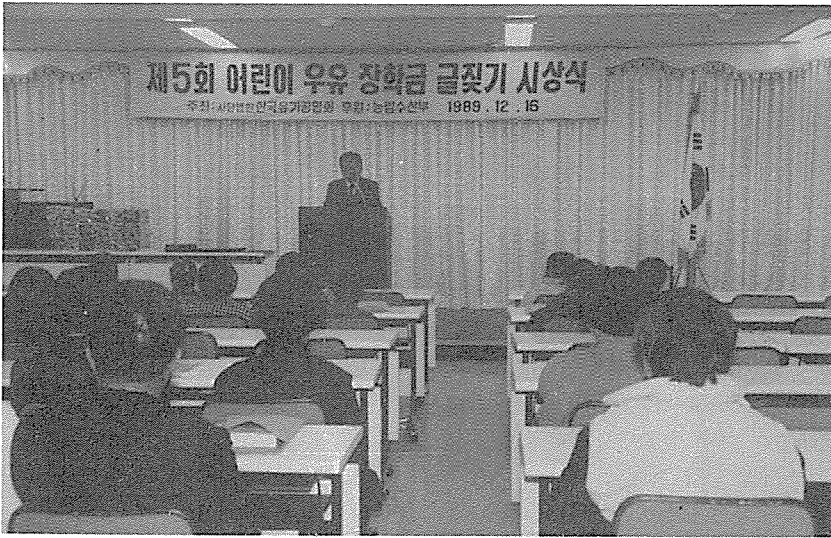


제 5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공모 당선 작품소개

이 글은 당협회가 '89년도 우유 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5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7,712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 가작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 등 총 48편이 당선되어 이번 호에는 최우수작및 우수작2편을 소개하고, 잔여 가작, 입선작, 장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註)



최우수



우리집은 우유가족

목포시 동국민학교
4의 7 손상경

몇 달전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우유를 나누어 주었다. 나도 먹고 싶었다. 3학년때는 오빠와 나도 우유를 먹었는데 우리 동생 형빈이가 젖을 떼고 우유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기로 했다. 어머니께서

집안 경제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에게 떼를 쓰기로 했다. 집에 오자마자.

“엄마, 나 우유 먹고 싶어요.”하고 졸랐다. 엄마는

이번 달 월말고사를 잘 치르면 우유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오빠와 나는 열심히 공부하여 오빠는 평균 98점, 나는 92점을 맞았다.

엄마는 약속대로 즉시 우유 대리점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유아주머니께서 오셨다. 오늘은 우유가 떨어지고 없으니 내일 아침부터 우유를 배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오니 식탁 위에 우유가 있었다. 먼 나라 뜨거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탐험가들이 이렇게 기뻐했을까? 시원하게 마시는 우유는 너무나 맛있다.

우유를 마시면서 오빠와 나와 동생이 많이 컸다고 엄마는 늘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자랑하십니다. 우리 아빠와 엄마는 우유를 안 마십니다. 먹고 싶지만 집안 사정이 허락치 않는다고 하십니다. 엄마는 우유가 얼마나 먹고 싶으실까? 요즈음 아빠는 번비로 뱃속이 안 좋으시다고 물을 마신다. 내 우유를 드렸지만 아빠는 한사코 안 드십니다. 상경이가 먹고 많이 크고 예뻐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와 엄마도 우유를 드실까? 나는 우유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엄마가 우유를 드셨다. 사실은 나도 먹고 싶었다. 그렇지만 엄마가 드시니 마음이 매우 좋았다. 꼭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예수님 생각이 났다. 다음부터는 용돈을 모아서 우유를 사서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께 드려야지. 아빠가 우유를 드시면 번비가 없어질 것이고, 엄마가 우유를 드시면 더 예뻐질 것 같다. 우리 엄마는 화장도 꼭 일요일 교회에 갈 때만 하십니다. 3층에 사시는 진복이 오

빠 엄마는 우리 엄마 보고 우유도 마시고 피부를 가꾸라고 하십니다. 엄마와 내가 목욕탕에 가면 다른 아주머니들은 탕 안에 우유를 가지고 오십니다. 온 몸에다 우유를 바르십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우유를 바르시는데 우리 엄마는 먹기도 아까운 우유를 몸에다 바른다고 노여워 하십니다. 엄마의 생각은 아주머니들의 행동과 왜 다를까? 내 친구집에 놀러 가면 친구의 엄마는 발바리 개에게도 우유를 주십니다. 그것을 볼 때 나도 아까운 생각이 든다. 엄마께 주고 싶어서이다. 사람도 아닌 개가 우유를 먹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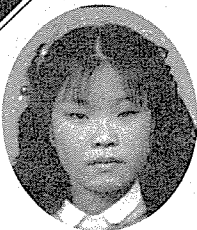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 엄마는 할머니께는 언제나 우유를 사 드린다. 할머니 친구분들이 놀러 오셔도 언제나 우유를 대접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시니, 이도 없으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시니 우유가 제일 좋다는 것이다. 우리 집 식구들은 우유를 제일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동생 형민이가.

우리 식구는 우유를 먹는다고 복용한다. 보약이 생각나면 우유를 먹는다. 탕수육 대신 우유를 찾는다.

우유는 참 고마운 식품이며 좋은 음료수이다. 맨 처음 누가 우유를 발견하였을까? 고마우신 분이다. 우유를 쉬지않고 생산해내는 소가 없다면, 소가 먹을 풀이 없다면, 생각만하여도 목이 탄다. 길가에 있는 작은 풀 하나라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우리에게 좋은 우유를 주는 소들아, 고맙다. 착한 소야, 오래오래 살다 죽으면 천당에 가거라.

우유가 우리 집에 올 때까지 수고하시는 여러 어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수자



고마운 우유

청주시 내덕국민학교
5의2 황진희

감감한 새벽,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는 자전거에 몸을 싣고 우유배달을 나가신다. 난 엄마가 우유배달을 나가실 때 잠을 깨었으면서도 자는척하면서 엄마가 우유배달을 나가신 후에 일어난다.

솔직히 말하면 난 우리 엄마가 우유배달 하시는 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우유도 싫어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우유배달을 나가실 때 내가 깨어 있으면 아침운동은 건강에 좋은거라며 같이 가자고 하신다. 안간다고 하면 엄마께서 섭섭해 하실까봐 자는 척을 한다.

그러던 중 어느날, 약간의 피로와 감기가 겹쳐 병원에 며칠간 입원해 계셔야했다. 난 자꾸 슬퍼졌다. 꼭 엄마가 돌아 가실 것만 같고, 시름시름 앓으실 때는 전에 엄마께서 우유배달을 나가실 때 일부러 따라나서지 않은 것이 후회됐다. 엄마가 우유배달 나가실 때 따라가서 엄마를 조금만이라도 도왔더라면 이렇게 시름시름 앓으시지는 앓으실텐데…….

“엄마께서 몸은 건강하신데 너무 힘들게 일하셨구나. 생명엔 지장없으니 걱정하지 말거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걱정은 돌렸지만 그래도 엄마가 무척 불쌍했다.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곧장 갔더니 엄마께서 침대에서 일어나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 계셨다. 그리고 퇴원준비를 하고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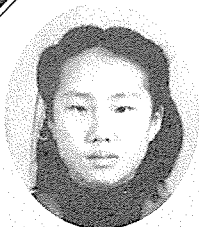
“진희야, 너 엄마가 우유배달 하는 것이 부끄럽지?”

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엄마께서는 말을 계속 이르셨다.

“진희야, 우유는 단백질, 칼슘, 무기질등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완전식품이란단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고 야단들이지. 그래서 엄마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엄마가 우유배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진희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거야. 엄마는 건강을 배달하는 건강배달원이란단다. 진희야, 아직도 엄마의 직업이 부끄럽니?”

난 말을 얼버무리며

“아……아니 이젠 아녜요.”하고 말하며 엄마 품에 털썩 안겼다. 그리고는 엄마가 먹던 우유를 빼앗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건강을 마셨다. 엄마께 감사하며…….



우유만들기

강릉시 영동 국민학교
6의2 임지미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선생님이 이런 주제의 숙제를 내 주셨다. 기간은 1주일.

‘그런거야 쉽지 뭐’

나는 공책에다 1주일 동안 할 숙제를 단 1분만에 써 냈다.

너무 성의가 없는 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걸 알아오라는 선생님이 못마땅했다.

사람들은 항상 우유가 몸에 좋다고 말한다.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좋다고……

피부가 좋아지고 빈혈을 방지하며, 치아가 건강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잘 오고, 시력이 좋아

지고, 식욕도 좋아지고, 성장 발육이 빨라지고, 성격이 온순해지고, 뭐든지 잘된다는 등등.

하지만 난 우유를 많이 먹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매일 우유를 받아 오지만 대부분 책상 서랍에 잔뜩 너 뒀다가 상해진 뒤에는 화초에 주거나 버려버린다. 때로 선생님께 들켜서 혼도 냈지만 고칠 수는 없었다. 특히 흰 우유는 질색이었다. 이런 나에게 어느날 갑자기 이런 과제를 내 주시니 새 낼 제간이 없었다. 항상 우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또 싫어했으니깐.

숙제로 그걸 쓴 뒤 6일째인 일요일.

내일 당장 발표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좀 걱정되기도 하고 선생님 표정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할 때,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빠리리리리, 빠리리리리’

“누구세요?”

엄마가 현관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외삼촌의 장난스런 말

“하하하, 누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예쁘시군요. 지미는 어디 갔나?”

“여기 있습니다.”

외삼촌은 항상 사람을 즐겁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 그래서 외삼촌이 오는 날이면 난 언제나 즐거웠다.

“오늘은 또 왜왔니? 용돈 타가려고?”

엄마의 웃음 반, 짜증 반의 목소리였다.

“아니 날 뭘로 보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 있잖아. 저번 상타기 큰 잔치에 내가 글썽 놀랍게도 대관령목장 초대권을 따 낸거야. 그래서 그게 4사람이 갈 수 있는 거라 같이 가려 온 건데 왜 그래?”

엄마는 처음엔 외할아버지와 할머니나 모시고 가랬지만 외삼촌의 끈질긴 노력과 집념으로 드디어는 가기로 했다. 이것은 정말 기막힌 우연의 일치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숙제 마지막 날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난 좀 망설였지만 가기로 마음먹었다.

숙제를 잘 해가서 아이들에게 뽐내고도 싶었고 워낙 어디 가길 좋아한 터라 같이 따라나선 것이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말로만 들던 농장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입에선 저절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학교 운동장보다 한 1000배는 넘을듯한 넓다란 평지에 파랗디 파랗게 자라난 잔디하며, 그 속에서 풀을 씹으며 어슬렁 거리는 얼룩 젓소들.

쌀쌀한 추위에도 싱싱하기만 한 공기와 물은 구경 해 본 적도 없는 맑고 깨끗하고 상쾌한 것이었다.

이 곳이야말로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가 싶었다.

우유만드는 공장으로 향했다.

처음보는 기계나 장치가 이리저리 널려있었다. 커다랗고 거대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였다. 우유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장치가 필요한 줄을 미처 몰랐다.

안내인 아저씨는 우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다.

처음엔 목장에서 젓소에게 짜낸 우유를 모아서는 공장으로 옮겨서 먼지를 없애고, 지방을 곱게 만든 다음 살균하여 냉각시킨 후 병에 넣어 여러 상점으로 보낸다고 한다. 또한 우유는 당분, 지방, 단백질, 회분, 비타민등의 영양소가 풍부한데다 맛과 향기가 좋아 그 수요량이 날로 늘어난다고 하시며 우유로 많은 음식도 만들 수 있다고 알려 주셨다.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버터, 치즈, 분유등은 모두 우유가 재료라고 하니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유를 먹은 셈이 된 것이다. 우유 중에서도 흰 시유는 다른 우유에 비해 영양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내가 우유를 싫어하면서도 먹을 때는 초코 우유만 찾은 것이 부끄럽다.

우유는 상하거나 여러가지 세균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제조 연월일을 살펴서 조심스럽게 먹어야 한다고 충고도 해주셨다. 다 둘러 본 후 집으로 되돌아 오는 차 속에서 텔레비전에서만 얼핏 구경했던 목장과 우유공장을 실지로 보고 듣고 많은 걸 배워 보람있는 견학이었다고 스스로 느꼈다.

이렇게 영양가 높고 몸에 좋은 우유를 나는 왜 멀리하고 싫어만 했는지……. 다음 날 숙제 발표 때 칭찬을 받은 것은 물론이요 아이들로부터 질문 세례까지 받았으니 그야말로 내가 선생님이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나는 우유대장이다. 하루 아침에 생각이 바뀌다니, 내 자신이 좀 우습기도 하지만, 날마다 아침이면 우유를 찾게 되었고 이전 학교 성적도 쑥쑥 올라 완전히 우유가 좋아져버렸다.

나에게 견학할 기회를 주신 외삼촌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우유는 아기들만 먹는 줄 알았던 내가 바보였다.

젖소가 '움머, 움머'거리며 풀을 뜯는 넓디 넓은 목장의 들판 전경이 내 눈앞에 선해 온다.

유제품의 종류

- (1) 액상 유제품 - 시유, 딸기우유, 초콜렛우유, 커피우유, 비타민D강화우유, 저지방우유, 멸균시유, 유아용 조제유.
- (2) 지방성 유제품 - 크림, 버터, 저지방크림.
- (3) 농축 유제품 - 가당연유, 무당연유, 농축조제유, 농축유청.
- (4) 건조 유제품 - 탈지분유, 전지분유, 분말크림, 조제분유.
- (5) 냉동 유제품 - 아이스크림, 셔벳, 아이스밀크
- (6) 발효 유제품 - 자연 치즈(체다치즈, 모짜렐라치즈 등), 가공치즈, 호상 요구르트, 액상요구르트, 냉동요구르트.
- (7) 유가공 부산물 - 유당, 농축유청 단백질, 유청분말, 버터밀크.
- (8) 모조 유제품 - 마가린, 커피크리머, 우유를 섞은 두유, 모조아이스크림.